

## “모두를 위한 무용(Dance for All)”의 맥락에서 댄스리터러시의 개념 및 구성요소<sup>†</sup>

김지안 상명대학교 · 홍애령 한국교원대학교 · 이지영 상명대학교 · 박정주 러프버러대학교 · 김은혜\* 가톨릭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 세대, 사회적 배경을 아우르는 무용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댄스리터러시(dance literacy)의 의미를 규명하고, 그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무용은 영유아부터 노년층,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신체적으로 표현하고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예술 양식으로, 최근 ‘모두를 위한 무용(Dance for All)’이라는 가치가 확산되면서 댄스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선행연구는 개념적 논의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대부분으로,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소와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지역사회, 전문무용 분야에서 활동 중인 무용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7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정된 델파이 조사(modified Delphi survey)를 실시하여 댄스리터러시의 세부 구성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후 37명의 무용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여 각 구성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댄스리터러시는 “무용의 원리를 바탕으로 신체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실천적으로 수행하며, 예술적 의도를 구체적 움직임으로 전환하는 능력”으로 정의되었으며, ① 무용원리 이해력, ② 문화적 공감력, ③ 창의적 구성력, ④ 움직임 표현력의 네 가지 하위요인이 도출되었다. 세부적으로, 무용원리 이해력에는 기법적·심법적 원리 이해, 무용정보 탐색 및 지식 수용 역량이 포함되었으며, 문화적 공감력에는 문화적 감수성, 심미안과 향유력, 관계 및 소통력, 문화시민의식이 포함되었다. 창의적 구성력에는 문제해결력, 창의적 사고력, 융합적 응용력, 발상의 전환이, 움직임 표현력에는 모방과 구현, 응용과 확장, 의미 창조와 구성, 통합적 실행이 포함되었다. AHP 분석 결과, 움직임의 모방과 구현 능력(0.18), 움직임 응용과 확장 능력(0.11), 창의적 사고력(0.08), 움직임의 통합적 실행력(0.07), 문화시민의식(0.06)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댄스리터러시가 단순히 무용의 기능적 수행을 위한 신체 표현 능력을 넘어 창의적 사고, 문화적 감수성, 문화시민의식을 포괄하는 전인적·통합적 역량임을 시사한다. 특히 무용을 매개로 한 사고력과 표현력의 발전은 참여자의 심미적 성장과 문화적 이해를 심화시키며, 세대와 배경을 초월한 예술 향유의 기반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댄스리터러시는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교육적 프레임으로서, 향후 무용교육의 핵심 역량 체계 정립과 포용적 예술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댄스리터러시, 모두를 위한 무용, 문화민주주의, 수정된 델파이 기법, 계층분석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무용의 사회적 가치가 다양하게 확장되면서, 무용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개인의 삶과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적 실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의 원칙 아래, 무용을 누구

<sup>†</sup>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8104241)

\* 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육전담초빙교수, ehkim@catholic.ac.kr

나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예술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최도빈, 2023). 이는 무용을 소수의 전문무용수만의 영역이 아닌, 모든 시민이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공재로 인식하는 관점에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두되고 있는 ‘모두를 위한 무용(Dance for All)’의 가치는 연령, 성별, 신체 조건, 사회적 배경 등 다양한 차이를 포용하면서, 누구나 무용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포괄적 예술 접근을 강조한다(Kane, 2022). 이에 따라 무용은 예술교육과 문화정책의 영역에서 접근성(accessibility)과 포용성(inclusivity)을 실현하는 핵심 매개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 담론 속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Pecina, 2024).

무용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예술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무용은 영유아기에는 신체 발달과 정서 표현을(홍애령, 이소미, 2021),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조미성, 2025), 성인기에는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 강화를(김은지, 이숙영, 2024), 노년기에는 인지 기능 유지와 삶의 의미 재발견을 돕는다(최수영, 홍예주, 2021). 또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게는 자기 인식의 회복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현숙, 임경원, 2022).

이러한 점에서 국내에서도 무용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 중 체육 교과 내 표현활동으로 다뤄지고 있으며(박혜연, 202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 아래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다(박성연, 2024). 예를 들어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늘봄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술꽃 새싹학교 지원, 시민·사회 문화예술교육에서는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와 생활예술동아리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복지, 평생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무용은 예술적 경험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이숙영, 이제성, 2024).

이처럼 무용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무용이 지닌 교육적·문화적·사회적 기능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댄스리터러시(dance literacy)는 무용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은 리터러시(literacy)의 전통적인 개념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리터러시는 문자와 언어를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지식과 의미를 해석하고 소통하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하는 능력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Gee, 1991; Street, 2003). Gee(1991)와 Street(2003)은 리터러시를 단순한 개인적 기술(skill)이 아니라,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으로 보았다. 이들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리터러시 개념과 구분되는 뉴 리터러시(new literacy)의 개념을 제시하며, 리터러시가 사회적 참여와 의미 형성의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The New London Group(1996)은 리터러시의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문자 중심의 언어 해독을 넘어 시각적·청각적·신체적 표현 등 다양한 양식(mode)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다중적 역량, 즉 멀티리터러시(multiliteracies)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교육이 단일한 언어체계나 문화에 기반한 문해를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표현 양식을 포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다중 리터러시의 관점은 신체적 표현을 포함한 예술 활동을 리터러시의 확장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후 리터러시는 사회 변화와 매체 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여가 리터러시(recreational literacy), 시민 리터러시(civic literacy), 다문화 리터러시(multicultural literacy),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 등 다양한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되며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Lynch, 2019). 예컨대, 디지털 리터러시는 온라인 정보의 탐색·이해·활용 능력을 의미하며,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창의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시민 리터러시

는 사회 참여와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중시하며, 다문화 리터러시는 상이한 문화적 가치와 관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역량을 강조한다. 또한 비판적 리터러시는 정보와 담론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적 역량을 포함한다. 이러한 리터러시의 세분화는 문자 해독 중심의 전통적 문해 개념을 넘어, 개인이 사회적·문화적·기술적 맥락 속에서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전인적·통합적 역량(holistic and integrative competency)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이러한 논의가 신체를 통한 학습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체화된 리터러시(embodied literacy)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감각적·운동적 경험을 리터러시 개념 안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Enriquez et al., 2016; Schmidt & Beucher, 2018).

댄스리터러시는 리터러시 개념의 사회문화적 확장(Gee, 1991; Street, 2003; The New London Group, 1996)에 근거하여 등장한 개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리터러시가 단순한 문자 해독 능력이 아니라 의미 구성과 사회적 실천의 과정으로 재정의되면서, 신체적·예술적·비언어적 리터러시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다(Eisner, 1998). 이러한 흐름 속에서 Hong(2000)은 댄스리터러시를 처음으로 교육과정 차원에서 체계화하며, 이를 운동적(kinesthetic)-안무적(choreographic)-비판적(critical)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녀는 무용을 단순한 기술 훈련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재해석하는 리터러시적 실천으로 보았으며, 무용을 통해 학습자들이 ‘무용 안에서’뿐 아니라 ‘무용을 통해’ 다른 교과목의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Dils(2007a, 2007b)는 댄스리터러시를 무용 감상(dance appreciation)의 확장된 형태로 개념화하며, 무용을 읽고(read)-쓰는(write) 능력으로 재정의하였다. 그녀는 학교 교육이 지식의 언어적 형태에 편향되어 있음을 비판하며, 무용을 통해 감각·정서·사고가 통합되는 학습 경험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Grumet(1988)의 ‘몸읽기(bodyreading)’ 개념을 인용하여, 신체를 통한 해석과 표현 행위가 리터러시의 핵심적인 형태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논의는 여전히 감상과 비평 중심의 인지적 리터러시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지닌다.

Anttila(2013)는 북유럽 무용교육 연구에서 댄스리터러시를 신체적 학습(bodily learning)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마음과 몸을 분리하는 데카르트적 이원론(Cartesian dualism)을 거부하고, 무용을 경험적·관계적·사회적 학습의 과정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체적 학습은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식 구성의 과정이며, 사람들은 무용 참여를 통해 신체적 지식(bodily knowledge)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무용교육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학습자의 정체성, 관계, 감각적 인식을 통합하는 교육적 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Leyva(2015)와 Leonard 외(2016)는 다중양식적(multimodal) 관점에서 댄스리터러시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무용이 언어적,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신체적 양식이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복합적 과정임을 밝히고, 무용수들이 “움직임을 읽고(read movement) 안무를 쓰는(write choreography) 행위”(Leyva, 2015, p. 31)를 통해 리터러시를 실천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댄스리터러시를 단순한 신체 표현의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 양식이 교차하는 다층적 의미 구성의 장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Jusslin(2019)은 댄스리터러시에 관한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며, Freire의 비판적 교육학(critical pedagogy)에 기반한 ‘학교 댄스리터러시 모델(Dance Literacy Model for Schools, DLMS)’을 제안하였다. 그녀는 댄스리터러시를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무용, 타 리터러시와의 결합, 타 교과 학습을 위한 매개로서의 무용이라는 세 차원으로 구성하고, 이를 해방적 실천(emancipatory praxis)으로 이해하였다. 즉, 댄스리터러시 교육은 교사의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습자의 창조적 실천과 비판적 사고를 통합하는 다층적 리터러시 교육의 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댄스리터러시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초기 논의는 댄스리터러시를 무용교육의 전인적 목표로 해석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최의창(2011)은 댄스리터러시를

“무용을 실제로 할 수 있고 마음으로 알고 있는 수준이나 상태”(p.153)로 정의하며, “몸으로 행하고, 머리로 만들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자질”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각각 무용능(dance competence), 무용지(dance knowledge), 무용심(dance disposition)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세 요소가 통합된 상태를 무용안(dance phronesis)이라 명명하였다. 무용안은 무용에 대한 고유한 관점과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안목과 자신감이 준비된 상태를 의미하며, 무용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전인교육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서예원 외(2013)는 문화적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댄스리터러시의 개념과 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녀는 댄스리터러시를 “무용의 전반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통합 능력”, 즉 “무용을 예술적·심미적·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능력, 그리고 무용의 현상을 타 예술 및 인접 학문과 연계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p.39). 나아가, 댄스리터러시를 무용의 의미 분석·이해·감상·비판에 이르는 총체적 ‘무용 알기’로 설명하며, 무용교육의 영역을 “실행(춤추기)-창작(춤만들기)-감상(춤보기)-소통(춤나누기)”의 네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로써 무용교육이 사회·문화적 맥락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타 영역 및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현대사회적 의미를 확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임수진(2015b)은 무용이 지닌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댄스리터러시를 제안하였다. 그녀는 이를 “무용을 통해 함양되는 여러 세부 자질들을 통합하여 현대적 관점에서 재개념화한 교육학적 용어”(p.140)로 정의하고, 무용의 기능이나 이론보다는 실제적 실천을 강조하는 교육방법으로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임수진(2015a), 임수진과 문영(2017)은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소를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의 다섯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신체성은 동작 수행력과 신체 운용력, 인지성은 동작 인식력과 지식 종합력, 감수성은 심미·감각 체험력, 사회성은 개인 조절력과 대인관계력, 정신성은 자기집중력과 마음가짐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진(2020)은 앞선 논의를 토대로 댄스리터러시의 수준을 단계별로 유형화하였다. 그녀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댄스리터러시의 수준별 특징을 분석하며, 명시적-기능적-개념적-다차원적 댄스리터러시의 네 단계를 제시하였다. 명시적 리터러시는 ‘무용’의 개념적 의미를 인식하는 수준이며, 기능적 리터러시는 무용 관련 기술을 알고 수행할 수 있는 단계이다. 개념적 리터러시는 무용과 관련된 인문학적·자연과학적 지식을 이해하는 수준을, 다차원적 리터러시는 무용을 일상에 적용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도는 댄스리터러시의 발달적 구조와 교육적 범위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무용교육의 목표와 내용·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민현주(2021)는 국내 논의를 종합하며, 댄스리터러시가 현대 사회의 ‘삶의 기술(life skills)’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이를 단순한 수행 능력이 아닌 “생활 속 실천적 역량”으로 해석하였으나, 개념적 확장에 비해 적용 범위와 평가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김소연과 임주미(2025)는 생활무용 참여자를 대상으로 댄스리터러시 척도를 개발하며 신체활용능력, 인지활용능력, 심미적 공감능력, 상호소통능력의 네 요인을 제시하였다. 국내 댄스리터러시 연구의 실증적 확장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생활무용을 ‘순수무용(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과 ‘실용무용(스트리트댄스, K-pop댄스, 댄스스포츠, 벨리댄스, 폴댄스)’으로 구분하고, 취미로 무용에 참여하는 일반인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적용 범위는 비전문적·자기표현 중심의 여가무용 맥락에 제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 지역사회, 전문무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무용교육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하여,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소를 다층적으로 규명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종합하면, 국내 댄스리터러시 연구는 무용의 기술적 수행능력, 감상·비평 능력, 창의적 사고 및 문화적 이해를

통합하는 역량으로서의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개념적 논의(민현주, 2021; 임수진, 2015; 최의창, 2011)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단계(문영, 임수진, 2021; 천혜미, 문영, 2019)에 머물러 있으며, 구성요소 간 관계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부족하다. 또한 연구의 초점이 주로 학교 및 고등교육(문영, 임수진, 2021; 임수진, 문영, 2017)이나 특정 연령층(이지설, 2023)에 한정되어 있어, ‘모두를 위한 무용’이 지향하는 포용적 가치와의 연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댄스리터러시를 전인적 교육목표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던 기존 관점을 넘어, 연령·세대·사회적 배경을 포괄하는 포용적이고 사회문화적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재정립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학교, 지역사회, 전문무용 영역의 무용교육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댄스리터러시의 세부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그 상대적 중요도를 검증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 정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연령, 세대, 사회적 배경을 아우르는 무용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댄스리터러시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을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무용교육의 핵심 역량 체계 정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며, 둘째, 구성요소 간 중요도 분석을 통해 무용교육 및 문화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증적 지표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새롭게 제안된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을 토대로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교육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댄스리터러시의 정의는 무엇인가?

둘째, 댄스리터러시는 어떠한 구성요인으로 이루어지며,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이러한 결과는 ‘모두를 위한 무용’의 맥락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 세대, 사회적 배경을 아우르는 무용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댄스리터러시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규명하고 각 구성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고찰, 수정된 델파이 조사, 의사결정계층기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의 3단계 절차로 진행하였다.

##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생애주기 댄스리터러시의 개념 정립 및 지표개발을 위해 정책적 문제 또는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집단적 합의를 도출하는 수정된 델파이조사(modified Delphi survey)를 실시하였다. 수정된 델파이 조사를 위한 전문가 집단은 비확률적 표집방법의 일종인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에 의해 선발하였으며, 무용 분야의 현장 실무 경험과 학술적 전문성을 동시에 겸비한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사회, 전문무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

며 교육 및 지도, 관련 분야 연구 경험을 갖춘 전문가 총 7명을 최종 선정하여, 구성요인과 세부요소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전문가 집단의 특성

| 구분 | 이름    | 직위   | 전공분야       | 경력  |
|----|-------|------|------------|-----|
| 1  | 전문가 A | 교수   | 학교, 전문무용교육 | 20년 |
| 2  | 전문가 B | 교수   | 사회무용교육     | 24년 |
| 3  | 전문가 C | 교수   | 학교무용교육     | 12년 |
| 4  | 전문가 D | 교수   | 학교, 사회무용교육 | 10년 |
| 5  | 전문가 E | 연구교수 | 사회, 전문무용교육 | 20년 |
| 6  | 전문가 F | 연구교수 | 학교무용교육     | 13년 |
| 7  | 전문가 G | 연구교수 | 사회, 전문무용교육 | 8년  |

수정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인 및 하위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우선순위 대안을 도출하는 전략적 의사결정방법인 Saaty(1994, 2008)의 AHP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사회, 전문무용 분야에서 활동 중인 무용교육자 37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댄스리터러시의 지표개발에 대한 쌍대 비교(pairwise comparison)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구성요인의 하위요소 간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첨부하여 서면을 통해 AHP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구분    | 특성     | 빈도(명) | 비율(%) |
|-------|--------|-------|-------|
| 성별    | 여성     | 20    | 54.1  |
|       | 남성     | 17    | 45.9  |
| 연령    | 20대    | 7     | 18.9  |
|       | 30대    | 17    | 45.9  |
|       | 40대    | 9     | 24.3  |
|       | 50대    | 4     | 10.8  |
| 학력    | 대학교 졸업 | 14    | 37.8  |
|       | 석사 학위  | 15    | 40.5  |
|       | 박사 학위  | 8     | 21.6  |
| 교육 경력 | 5년 이상  | 13    | 35.1  |
|       | 10년 이상 | 16    | 43.2  |
|       | 20년 이상 | 5     | 13.5  |
|       | 30년 이상 | 3     | 8.1   |
| 합계    |        | 37    | 100.0 |

##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 세대, 사회적 배경을 아우르는 무용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댄스리터러시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규명하고 각 구성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고찰-수정된 델파이 조사-AHP의 3단계 절차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인 문헌고찰에서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무용, 무용교육, 댄스리터러시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적 정의를 도출하고 초기 구성요인 및 하위요인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헌고찰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구성요인 및 하위요인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전문가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수정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정된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들의 반복적 피드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으로(Hsu & Sandford, 2007; Okoli & Pawlowski, 2004) 무용분야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초기 개념적 정의에 대해 개방형 의견을 수렴하고 구성요인의 적절성을 평가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합의된 댄스리터러시 최종 정의에 대해 도출 및 재구성된 구성요인과 하위요소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에 대해 평가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은 Lawshe(1975)의 내용 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적용하였다. 전문가 수 7명일 때의 기준치인 0.62 이상을 충족한 항목만을 최종 분석에 포함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구성요인과 하위요인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수정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인과 하위요인을 대상으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산출하기 위해 계층화 분석법인 AHP를 적용하였다. AHP는 의사결정 요소를 계층적으로 구조화한 뒤 요소 간 쌍대 비교를 통해 상대적 가중치를 추정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법으로, Saaty가 제안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Saaty, 1994, 2008). 연구 참여자에게 AHP 설문지를 배포하고 구성요인 및 하위요인을 1~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산출하여  $CR \leq .10$ 인 응답만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Saaty, 1994).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정된 델파이 조사 및 AHP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생애주기 특성이 반영된 최종 지표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에는 SPSS 25.0을 활용하여 연구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였으며, Microsoft Excel 2019 및 Expert Choice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HP 기법의 일관성 검증 및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댄스리터러시의 개념 정의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수정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반영한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적 정의와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문헌고찰 결과, 리터러시는 단순히 문해력을 넘어 해당 분야 또는 대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종합적 이해력과 실행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 분야에서 리터러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선행연구들은 댄스리터러시를 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Dils, 2007a), 무용에 관한 지식과 예술 양식으로서 무용을 만들고, 행하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합쳐진 것(Hong, 2000), 운동기능적 영역, 안무적 영역, 비판적 영역을 포괄하는 다중적 리터러시(Anttila, 2013) 등으로 제시해왔다. 국내 연구에서는 전인적 발달과 운동감각능력, 안무능력, 비평적 능력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내면화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돕고, 통합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간이 습득해야 할 보편적인 교양 혹은 능력으로 개념화된 바 있다(임수진, 2015b).

이러한 문헌고찰 결과를 토대로 1차 수정된 델파이 조사에서는 전문가 패널 7명을 대상으로 댄스리터러시의 초기 개념적 정의에 대한 개방형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댄스리터러시가 단순한 신체 기술이나 기능 습득을 넘어 무용의 원리 이해, 문화적 맥락 인식, 창의적 사고, 실천적 표현을 통합하는 포괄적 역량으로 구

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연령, 수준, 장르에 한정되지 않는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보편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2차 수정된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구성된 정의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였으며, 전문가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댄스리터러시를 무용의 원리를 바탕으로 신체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실천적으로 수행하고, 예술적 의도를 구체적 움직임으로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댄스리터러시가 인지적 이해, 정서적 표현, 실천적 수행, 예술적 창조를 통합하는 다차원적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2.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인 도출 및 상대적 중요도 분석

### 1)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인의 개념

본 연구는 수정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인은 총 4개의 상위 구성요인과 16개의 하위요인으로 체계화되었으며, 각 구성요인의 구조와 세부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인 및 하위요인

| 구성요인     | 하위요인         | 정의                          |
|----------|--------------|-----------------------------|
| 무용원리 이해력 | 기법적 원리 이해    | 무용의 신체적·기술적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     |
|          | 심법적 원리 이해    | 무용의 정신적·심리적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     |
|          | 무용정보 탐색역량    | 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능력      |
|          | 무용지식 수용역량    | 무용 지식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능력        |
| 문화적 공감력  | 문화적 감수성      |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    |
|          | 심미안과 향유력     | 무용의 예술적 가치를 감상하고 향유하는 능력    |
|          | 관계 및 소통력     | 무용을 통해 타인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능력    |
|          | 문화시민의식       | 문화예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       |
| 창의적 구성력  | 문제해결력        | 무용 활동 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
|          | 창의적 사고력      | 독창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     |
|          | 융합적 응용력      |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무용에 융합·적용하는 능력  |
|          | 발상의 전환       | 기존 관점을 전환하여 새로운 시각을 창출하는 능력 |
| 움직임 표현력  | 모방과 구현 능력    | 주어진 움직임을 정확히 모방하고 구현하는 능력   |
|          | 응용과 확장 능력    | 기본 움직임을 응용하고 확장하는 능력        |
|          | 의미 창조와 구성 능력 |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하고 구성하는 능력       |
|          | 통합적 실행력      | 다양한 움직임 요소를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능력   |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댄스리터러시는 무용원리 이해력, 문화적 공감력, 창의적 구성력, 움직임 표현력의 네 가지 상위 구성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구성요인의 개념적 정의와 하위요인은 다음과 같다.

#### (1) 무용원리 이해력

무용원리 이해력은 무용 경험을 통해 몸과 움직임이 사용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능력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기법적 원리 이해는 신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운동역학적 원리, 무용 장르별 기술 체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심법적 원리 이해는 무용의 정서적·미학적·철학적 기반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무용이 지닌 내적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무용정보 탐색역량은 무용 관련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다.

넷째, 무용지식 수용역량은 습득한 정보와 지식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내면화하고 실천에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2) 문화적 공감력

문화적 공감력은 무용 경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맥락과 예술적 가치를 이해하고 소통·공감하는 능력으로 정의되었다. 첫째, 문화적 감수성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전통, 사회적 맥락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둘째, 심미안과 향유력은 무용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인식하고 감상하며, 이를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향유하는 능력이다. 셋째, 관계 및 소통력은 무용을 매개로 타인과 정서적·신체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넷째, 문화시민의식은 문화예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3) 창의적 구성력

창의적 구성력은 무용 경험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대안적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었다. 첫째, 문제해결력은 무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예술적 문제를 인식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이다. 둘째, 창의적 사고력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독창적이고 새로운 움직임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융합적 응용력은 타 예술 분야나 인접 학문의 지식을 무용에 창의적으로 융합하고 적용하는 능력이다. 넷째, 발상의 전환은 익숙한 패턴이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무용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4) 움직임 표현력

움직임 표현력은 무용 경험을 통해 움직임을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실천적 수행력으로 정의되었다. 첫째, 모방과 구현 능력은 제시된 움직임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신체로 재현하는 기초적 수행 능력이다. 둘째, 응용과 확장 능력은 기본 움직임을 자신의 신체 특성과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의미 창조와 구성 능력은 움직임에 개인적·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조직하는 능력이다. 넷째, 통합적 실행력은 신체적·인지적·정서적 요소를 통합하여 완결된 움직임으로 실행하는 총체적 능력을 포함한다.

이상의 결과는 댄스리터러시가 무용의 원리 이해, 문화적 공감, 창의적 사고, 실천적 표현을 통합하는 다차원적 역량 체계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이는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교육적 프레임으로서, 모두를 위한 포용적 무용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2) 댄스리터러시 구성요인의 AHP 분석

수정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 댄스리터러시 구성요인 및 하위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CR을 산출하였으며, Saaty(1994)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CR ≤ .10인 응답만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37명의 연구 대상자 중 일관성 기준을 충족한 응답을 바탕으로 계층별 상대적 중요도와 최종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댄스리터러시 구성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댄스리터러시를 구성하는 4개 구성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움직임 표현력(.390)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창의적 구성력(.275), 문화적 공감력(.247), 무용원리 이해력(.141)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구성요인의 일관성 지수(C.I.)는 .030 이하로 나타나 응답의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교육 전문가들이 댄스리터러시를 평가함에 있어 신체를 통한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표현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움직임 표현력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나타낸 것은 무용이 본질적으로 신체적 매체를 통해 구현되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창의적 구성력과 문화적 공감력이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를 보인 것은 현대 무용교육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창의적 사고와 문화적 이해를 동등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대적으로 무용원리 이해력의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이론적 지식보다 실천적 경험과 창조적 역량을 우선시하는 현장 전문가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댄스리터러시 상대적 중요도 및 최종 우선순위

각 구성요인 내 하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전체 구성요인을 통합한 최종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무용원리 이해력 내에서는 무용지식 수용역량(.239)과 무용정보 탐색역량(.235)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심법적 원리 이해(.180), 기법적 원리 이해(.14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무용의 기술적·이론적 원리를 아는 것보다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지식을 실제로 내면화하는 실천적 역량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법적 원리보다 심법적 원리가 더 중요하게 평가된 것은 무용교육이 신체 기술뿐 아니라 정신적·미학적 이해를 포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반영한다.

문화적 공감력 내에서는 문화시민의식(.358)이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문화적 감수성(.247), 심미안과 향유력(.126), 관계 및 소통력(.120)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시민의식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인 것은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무용을 통한 사회적 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이는 무용이 개인의 심미적 경험을 넘어 사회적 실천과 문화적 책임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창의적 구성력 내에서는 창의적 사고력(.275)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문제해결력(.202), 발상의 전환(.194), 융합적 응용력(.151) 순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사고력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된 것은 무용교육이 정해진 동작의 반복이 아니라 독창적이고 새로운 움직임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창조적 과정을 중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제해결력과 발상의 전환이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를 보인 것은 무용 활동이 본질적으로 문제 인식과 관점 전환을 통한 창의적 해결 과정임을 반영한다.

### (3) 댄스리터러시 최종 우선순위

구성요인의 가중치와 하위요인의 가중치를 종합하여 산출한 16개 전체 하위요인의 최종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모방과 구현 능력이 1순위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냈으며, 이어서 응용과 확장 능력, 창의적 사고력, 통합적 실행력, 문화시민의식 순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AHP 분석결과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 및 최종우선순위

| 구성요인    | 상대적 중요도 | 하위요인      | 순위 | C.I. | 최종 우선순위 |
|---------|---------|-----------|----|------|---------|
| 무용원리이해력 | .141    | 기법적 원리 이해 | 4  | .030 | 16      |
|         | .180    | 심법적 원리 이해 | 3  |      | 15      |
|         | .235    | 무용정보 탐색역량 | 2  |      | 14      |
|         | .239    | 무용지식 수용역량 | 1  |      | 13      |

| 구성요인    | 상대적 중요도 | 하위요인         | 순위 | C.I. | 최종 우선순위 |
|---------|---------|--------------|----|------|---------|
| 문화적 공감력 | .247    | 문화적 감수성      | 2  | .030 | 10      |
|         | .126    | 심미안과 향유력     | 3  |      | 11      |
|         | .120    | 관계 및 소통력     | 4  |      | 12      |
|         | .358    | 문화시민의식       | 1  |      | 5       |
| 창의적 구성력 | .202    | 문제해결력        | 2  | .025 | 6       |
|         | .275    | 창의적 사고력      | 1  |      | 3       |
|         | .151    | 융합적 응용력      | 4  |      | 9       |
|         | .194    | 발상의 전환       | 3  |      | 7       |
| 움직임 표현력 | .390    | 모방과 구현 능력    | 1  | .029 | 1       |
|         | .241    | 응용과 확장 능력    | 2  |      | 2       |
|         | .118    | 의미 창조와 구성 능력 | 4  |      | 8       |
|         | .156    | 통합적 실행력      | 3  |      | 4       |

최종 우선순위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상위 5개 요인 중 4개가 움직임 표현력과 창의적 구성력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용교육 전문가들이 댄스리터러시를 평가함에 있어 실천적 수행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모방과 구현 능력이 1순위를 차지한 것은 무용교육이 신체를 통한 직접적 경험과 정확한 표현에서 출발해야 함을 강조한다. 동시에 창의적 사고력과 문화시민의식이 상위권에 위치한 것은 댄스리터러시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창의적 사고와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는 전인적 역량임을 시사한다.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위치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무용원리 이해력에 속한 4개 요인이 모두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는 이론적 지식이나 원리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천적 경험과 창조적 활동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론적 지식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AHP 분석 결과는 댄스리터러시가 신체적 표현, 창의적 사고, 문화적 공감, 원리 이해를 통합하는 다층적 역량 체계이지만, 그 중에서도 신체를 통한 직접적 실천과 창의적 구성 능력이 핵심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는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적 우선순위 설정과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3. ‘모두를 위한 무용’ 관점에서의 댄스리터러시의 교육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댄스리터러시가 특정 연령, 수준, 장르에 한정된 무용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신체 조건과 참여 맥락을 전제로 누구나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무용교육의 핵심 역량 체계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정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댄스리터러시의 개념 정의와 네 가지 구성요인, 그리고 AHP 분석을 통해 확인된 상대적 중요도와 최종 우선순위 결과는 ‘모두를 위한 무용(Dance for All)’이 지향하는 보편성, 접근성, 참여성을 교육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서 움직임 표현력이 가장 높은 상대적 중요도를 보였다는 점은 ‘모두를 위한 무용’의 핵심 가치인 접근성(accessibility)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네 가지 구성요인 중 움직임 표현력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나타냈으며, 하위요인 중에서도 모방과 구현 능력과 응용과 확장 능력이 전체 우선순위 상위에 위치하였다. 이는 무용교육이 언어 능력, 학습 경험,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신체를 통한 직접적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모방과 구현 능력은 정확한 동작 재현이나 표준화된 수행을 의미하기보다, 학습자 각자의 신체 조건과 움직임 가능성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움직임을 시도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 실행 능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장애, 고령, 신체 제약 등 다양한 참여 조건을 지닌 학습자에게도 무용 학습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포용적 기초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또한 창의적 구성력과 문화적 공감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인 결과는 '모두를 위한 무용'이 단순히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표현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함께 지향해야 함을 시사한다. 창의적 구성력에서는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이 높은 가중치를 나타냈으며, 문화적 공감력에서는 문화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하위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무용교육이 정해진 동작을 따라 하는 기능 중심 교육을 넘어,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맥락을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타인 및 공동체와 연결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문화시민의식이 높은 중요도로 나타난 점은, 무용교육이 개인의 심미적 경험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공동체적 실천을 포함하는 교육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무용원리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는 결과는 무용에서 이론의 배제를 의미하기보다는, 실천 중심의 학습 구조가 '모두를 위한 무용'의 맥락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용원리 이해력은 네 가지 상위 구성요인 중 가장 낮은 가중치를 나타냈으나, 하위요인 분석에서는 무용지식 수용역량과 무용정보 탐색역량이 기법적·심법적 원리 이해보다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는 무용교육 현장에서 이론적 지식을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기보다, 신체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이해를 학습자가 스스로 탐색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교육이 경험 기반 학습을 중심으로 구성될 때, 다양한 배경과 학습 수준을 지닌 참여자를 포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최종 우선순위 분석에서 상위 요인의 다수가 움직임 표현력과 창의적 구성력에 속한다는 점은 '모두를 위한 무용'이 결과 중심의 기술 습득이 아니라 신체적 수행 경험과 표현 형성의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뒷받침한다. 모방과 구현 능력, 응용과 확장 능력, 창의적 사고력, 통합적 실행력 등이 상위에 위치한 결과는, 무용교육이 결과 중심의 성취 평가보다 과정 중심의 경험과 표현을 중시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무용이 특정 기술 수준에 도달해야만 의미를 갖는 활동이 아니라, 참여 과정 자체가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 예술 실천임을 시사한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댄스리터러시가 신체적 표현을 중심으로 창의적 사고와 문화적 공감을 통합하는 다차원적 역량 체계이며,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교육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댄스리터러시는 무용교육을 특정 집단을 위한 전문 훈련에서 벗어나, 연령·세대·사회적 배경을 초월하여 누구나 참여하고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개념적·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학교, 지역사회, 평생교육 현장에서 '모두를 위한 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교육과정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IV. 논의

본 연구는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댄스리터러시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제안한다. 수정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댄스리터러시의 4개 구성요인인 무용원리 이해력, 문화적 공감력, 창의적 구성력, 움직임 표현력은 무용교육이 신체적 수행을 넘어 인지적·정서적·사회문화적 영역을 통합하는 전인적 역량 체계임을 보여준다. 이는 댄스리터러시를 무용능·무용지·무용심의 통합으로 개념화한 최의창(2011)의 관점, 그리고 신체성·인지성·감수성·사회성·정신성의 다섯 차원으로 제시한 임수진(2015a)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화시민의식과 융합적 응용력 같은 사회문화적 실천 역량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무용을 개인의 미적 경험에서 사회적 참여와 문화적 책임으로 확장하였다. 이는 문화민주주의 원칙 아래 무용을 소수 전문가의 영역에서 모든 시민

이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전환하려는 국제적 흐름(Kane, 2022; Pecina, 2024)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학교, 지역사회, 전문무용 영역의 전문가들을 모두 포괄하여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댄스리터러시가 특정 연령층이나 교육 맥락에 국한되지 않는 포용적 개념으로 정립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AHP 분석 결과, 움직임 표현력(.390)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특히 모방과 구현 능력이 전체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무용교육 전문가들이 신체를 통한 직접적 경험과 실천을 댄스리터러시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용은 본질적으로 신체라는 매체를 통해 구현되는 예술이며, 무용에 대한 이해는 몸을 움직이는 직접적 경험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이는 Anttila(2013)가 강조한 신체적 학습, 즉 마음과 몸을 분리하지 않고 신체를 통해 지식이 구성된다는 관점과 일치한다. 모방과 구현 능력이 1순위를 차지한 것은 모방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학습 방식이며, 모든 창의적 표현의 출발점이 정확한 관찰과 재현 능력에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의 ‘모방과 구현 능력’은 표준화된 동작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학습자 각자의 신체 조건과 수행 가능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움직임을 시도하고 달성하는 기초적 수행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체화된 리터러시 개념(Enriquez et al., 2016; Schmidt & Beucher, 2018)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며, 무용 학습이 신체를 통한 점진적 의미 형성 과정임을 시사한다.

창의적 구성력(.275)과 문화적 공감력(.247)이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를 보인 것은 현대 무용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의 변화를 드러낸다. 이는 무용교육이 정해진 동작의 정확한 재현만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창의적 사고와 문화적 이해를 동등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창의적 사고력이 전체 3위를 차지한 것은 무용교육이 정해진 동작의 반복이 아니라 독창적 아이디어의 생성과 창조적 과정을 중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시민의식이 문화적 공감력 내에서 압도적인 가중치(.358)를 보이며 전체 5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무용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예술적 성취를 넘어 문화적 책임과 사회적 참여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Jusslin(2019)이 제시한 댄스리터러시의 해방적 실천 관점에서 볼 때, 무용을 통한 학습은 개인의 기술 향상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문화적 배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포함해야 한다. 문화시민의식은 무용이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권리임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 실현과 직접 연결된다.

무용원리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141)를 보인 것은 이론적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무용’의 맥락에서 이론이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적 교수 모델은 이론적 지식이 먼저 습득된 후 실천으로 적용된다는 선형적 관점을 따르지만, 본 연구 결과는 무용교육 현장 전문가들이 실천을 통한 이론의 발견과 구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Hong(2000)이 강조한 무용을 통한 학습의 관점과 일치하며, Dils(2007a)가 제안한 경험 중심의 무용교육 접근을 뒷받침한다. 흥미로운 점은 무용원리 이해력 내에서도 무용지식 수용역량과 무용정보 탐색역량이 기법적 원리 이해나 심법적 원리 이해보다 높은 가중치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들이 단순히 주어진 원리를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용교육에서 신체적 경험 자체가 인식론적 가치를 지니며, 이론은 그러한 경험을 성찰하고 심화하는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Anttila(2013)가 제시한 신체적 지식 개념과 부합한다.

본 연구 결과는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함의를 제공한다. 댄스리터러시의 다차원적 구조는 무용교육이 다양한 학습자의 필요와 강점을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프레임워크임을 보여준다. 움직임 표현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신체를 통한 직접적 경험이 언어적 능력이나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학습 방식임을 시사하며, 이는 무용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문화시민의식의 높은 가중치는 무용교육이 사회적 포용과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함을 강조

하며, 창의적 구성력의 중요성은 무용교육이 정답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창조하는 과정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댄스리터러시가 신체, 인지, 정서, 문화를 통합하는 다차원적 역량 체계이며, 그 중에서도 신체를 통한 실천적 표현과 창의적 구성이 핵심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학교, 지역사회, 전문무용 영역의 전문가들을 포괄하여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생애 전반에 걸쳐 적용 가능한 포용적 개념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AHP 분석을 통해 구성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구체화하는 교육적 프레임워크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연령, 세대, 사회적 배경을 초월한 포용적 무용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무용교육 정책 수립과 교육과정 개발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 세대, 사회적 배경을 아우르는 무용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댄스리터러시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규명하고,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댄스리터러시는 무용원리 이해력, 문화적 공감력, 창의적 구성력, 움직임 표현력의 4개 구성요인과 16개 하위요인으로 구조화되었다. AHP 분석 결과, 움직임 표현력과 창의적 구성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보였으며, 특히 모방과 구현, 응용과 확장, 창의적 사고력, 통합적 실행력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교육에서 실천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신체적 수행 능력과 창의적 구성 과정을 핵심 역량으로 인식하는 현장 전문가들의 교육철학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문화시민의식이 문화적 공감력 영역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점은 무용이 개인의 심미적 경험을 넘어 사회적 상호이해와 공동체적 실천의 매개로 작동해야 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댄스리터러시는 신체성·인지성·정서성·사회문화성을 통합하는 전인적 역량 체계로서, 무용교육 및 문화예술정책 전반에서 핵심 역량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댄스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한 역량 중심 무용교육과정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실기 중심의 기존 교수·학습 체계에 창의적 구성 활동과 문화적 공감 역량을 통합하는 교수설계가 요구되며, 연령과 장르 특성에 따른 차등화된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댄스리터러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도구 및 지표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4개 구성요인과 16개 하위요인을 기반으로 진단도구 및 성취수준 기준표를 개발한다면, 무용 성과 평가를 기술 수행 능력 중심에서 통합적 역량 기반 평가체계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댄스리터러시 관점은 학교무용을 넘어 지역사회, 평생교육, 복지, 문화예술 정책 영역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세대 간 무용, 장애인 및 취약계층 무용 프로그램, 다문화 기반 무용 커뮤니티 등 포용적 문화예술 실천의 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기관 및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무용교육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일반 참여자, 학습자,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한 표집 연구를 진행한다면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무용 장르별, 교육 맥락별로 댄스리터러시의 강조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심층 연구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체계와 우선순위를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댄스리터러시는 무용을 단순한

예술 기술이 아니라 신체·인지·정서·사회문화를 통합하는 포용적이고 창조적인 역량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연령과 배경을 초월한 모든 사람이 무용을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교육적 프레임워크로 기능할 수 있다. 향후 댄스리터러시 기반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확산이 이루어진다면, 무용은 개인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문화민주주의의 실현 및 사회적 웰니스 증진에 기여하는 예술적 실천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강동희(2023). **댄스 리터러시 관점 유아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용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소연, 임주미(2025). 생활무용 참여자의 댄스 리터러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무용연구**, 43(1), 145-167.
- 김은지, 이숙영(2024). 성인여성 취미발레참여자의 긍정심리자본과 무용몰입의 영향관계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6(2), 601-614.
- 문영, 임수진(2021).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대학 교양강좌에의 적용 및 효과 탐색.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9(1), 157-172.
- 민현주(2021). 댄스 리터러시 논의의 맥락 및 과제.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9(4), 111-122.
- 박성연(202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용분야 문화예술교육 사례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박혜연(2023). 학교무용교육의 변화와 실천적 교수모형 탐색: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26(3), 149-167.
- 서예원, 조은숙, 문영, 김윤진(2013). 무용교육표준 개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42(3), 21-49.
- 이숙영, 이제성(2024). 만다라트 기법으로 바라본 지역사회 무용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9(5), 219-233.
- 이지설(2023). 초등학생의 댄스게임 경험과 댄스리터러시 함양.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31(2), 71-87.
- 임수진(2015a). **댄스 리터러시 개념 및 교수방법 탐색: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개념틀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임수진(2015b). 댄스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3(3), 123-145.
- 임수진(2020). 무용소양 수준의 유형화 연구. **한국무용학회지**, 19(4), 77-86.
- 임수진, 문영(2017).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예술강사 우수 수업사례 질적 분석. **한국예술연구**, (17), 171-194.
- 임현숙, 임경원(2022). 지적장애 무용단원의 생활세계를 통해 바라본 무용활동의 교육적 의미. **교육인류학연구**, 25(2), 75-117.
- 조미성(2025). 비대면 무용·동작치료가 청소년의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21(3), 105-125.
- 채향순(2015). 무용교육의 가치 제고에 있어 댄스 리터러시 개념의 함의.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3(5), 163-181.
- 천혜미, 문영(2019). 댄스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통합발레교육프로그램 개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7(3), 153-166.
- 최도빈(2023). 문화민주주의 시대, 문화예술 정책 지향점에 대한 철학적 이해. **인문과 예술**, (14), 47-72.
- 최수영, 홍예주(2021). 성공적 노화와 무용에 관한 연구동향. **한국무용과학회지**, 38(4), 119-132.
- 최의창(2011). 댄스 리터러시 혹은 무용소양-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 재검토. **무용역사기록학**, 21, 139-161.
- 홍애령, 이소미(2021). 영유아 무용교육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무용교육표준 분석: SLTDA와 NCAS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과학회지**, 38(2), 1-12.
- Anttila, E. (2013). *Koko koulu tanssii! Kehollisen oppimisen mahdollisuuksia kouluyhteisössä [The entire school dances! The opportunities of embodied learning in a school community]*. Theatre Academy.
- Dils, A. (2007a). Moving into dance: Dance appreciation as dance literacy. In L. Bresler (Ed.), *International Handbook on Research in Arts Education*, Part 1 (pp. 569-580). Springer.
- Dils, A. (2007b). Why dance literacy?. *Journal of the Canadian Association for Curriculum Studies*, 5(2), 95-113.
- Eisner, E. (1998). *The kind of schools we need: Personal essays*. Heinemann.
- Enriquez, G., Johnson, E., Kontovourki, S., & Mallozzi, C. A. (Eds.). (2016). *Literacies, learning, and the body: Putting theory and research into pedagogical practice*. Routledge.

- Gee, J. (1991). Socio-cultural approaches to literacy (literacies).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2, 31-48.
- Grumet, M. R. (1988). *Bitter milk: Women and teaching*.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Hong, T. (2000). Developing dance literacy in the postmodern: An Approach to curriculum. *Proceedings of the Dance in the Millennium Conference*, Washington DC.
- Hsu, C. C., & Sandford, B. A. (2007). The Delphi technique: Making sense of consensu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and Evaluation*, 12(1), 10.
- Jussliin, S. (2019). Conceptualizing dance literacy: A critical theoretical perspective on dance in school. *Dance Articulated*, Special Issue Bodily Learning, 2019 (1), 24-42.
- Kane, N. (2022). Dance for all? A rhapsody on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in dance and dance education. *National Dance Society Journal*, 7(1), 5-14.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 Leonard, A. E., Hall, A. H., & Herro, D. (2016). Dancing literacy: Expanding children's and teachers' literacy repertoires through embodied knowing. *Journal of Early Childhood Literacy*, 16(3), 338-360.
- Leyva, R. R. (2015). *Dance literacy in the studio: Partnering movement texts and residual texts*. The Ohio State University.
- Lynch, M. (2019, January 29). *What are the 13 types of literacy?* The Edvocate. <https://www.theedadvocate.org/what-are-the-13-types-of-literacy/>
- Okoli, C., & Pawlowski, S. D. (2004). The Delphi method as a research tool: An example, design considerations and applications. *Information & Management*, 42(1), 15-29.
- Pecina, S. (2024). Inclusion, diversity, equity, and accessibility. In *Dance Pedagogy* (pp. 147-156). Routledge.
- Saaty, T. L. (1994). How to make a decisi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terfaces*, 24(6), 19-43.
- Saaty, T. L. (2008). Decision making with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s Sciences*, 1(1), 83-98.
- Schmidt, K. M., & Beucher, B. (2018). Embodied literacies and the art of meaning making. *Pedagogies: An International Journal*, 13(2), 119-132.
- Street, B. (2003). What's 'new' in new literacy studies?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cy in theory and practice. *Current Issues in Comparative Education*, 5(2), 77-91.
- The New London Group. (1996). A pedagogy of multiliteracies: Designing social futur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66(1), 60-92.
- Whitehead, M. (2001). The concept of physical literacy. *Europ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6(2), 127-138.

## ABSTRACT

## Conceptualization of Dance Literacy in the Context of ‘Dance for All’ †

Jian Kim Sangmyung University · Aeryung Ho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Jiyoung Lee Sangmyung University · Jeongju Park Loughborough University ·  
Eunhye Kim\* Catholic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meaning of dance literacy formed through dance activities encompassing diverse ages, generations, and social backgrounds. It also sought to identify its key components and assess their relative importance. Dance is an art form that enables people of all backgrounds to express emotions and interpret experiences creatively. It increasingly embodies the value of “Dance for All,” encompassing children, older adult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ose from marginalised groups. This growing emphasis has renewed interest in the concept of dance literacy within educational and cultural contexts. However, empirical research on its structure and effectiveness in Korea remains limited. Accordingl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dance education experts working in schools, local communities, and professional dance settings. A modified Delphi survey was first administered to 7 experts to identify the subcomponents of dance literacy, followed by the application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ith 37 dance education experts to examin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component. Dance literacy was defined as “the ability to practise thoughts and emotions through the body based on the principles of dance and to translate artistic intentions into concrete movement.” Four components were identified: (1) comprehension of dance principles, (2) cultural empathy, (3) creative composition, and (4) expressive movement. The AHP results indicated that imitation and embodiment (0.18), application and expansion (0.11), creative thinking (0.08), integrated performance (0.07), and cultural citizenship (0.06) were prioritis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ance literacy is a holistic and integrative competency encompassing creative thinking, cultural sensitivity, and cultural citizenship. It emphasizes the value of “Dance for All” by providing a foundation for competency frameworks in dance education and by promoting more inclusive approaches to arts and cultural practice.

**Key words** : dance literacy, Dance for All, cultural democracy, modified Delphi survey,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논문투고일: 2025.12.01

논문심사일: 2026.01.10

심사완료일: 2026.01.23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 2020S1A5B8104241) .

\* Visiting Professor Specializing in Education,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and Culture, Catholic University